

# “수산물 찾는 손님 없어...일상으로 돌아갈 희망 잃었다”

### 르포-‘日 오염수 방출 결정’ 뒤 광주시 서구 수협 공판장 가보니

#### 지난해 3600t 유통...일본산 18.3t으로 반입 비중 적지만 ‘방사능 공포’로 식탁에서 수산물 사라질 생각에 마음 착잡 재난지원금은 바라지도 않아...중·러 공조 ‘日 방류’ 막아야

15일 오전 8시 찾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수협 광주공판장은 연 면적 1만2000㎡(3500여 평) 규모 건물에 수족관에 물 흐르는 소리만 공허히 울렸다. 기자가 머문 한 시간 동안 싱싱한 수산물을 사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사흘 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난 이후 광주·전남 어업인들은 코로나19 아픔이 가시지 않은 채 더딘 악재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한 중도매인 매장에서 열을 전부터 일했다는 운모(50)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해온 횡집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사업을 접은 뒤 이곳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수협 공판장에서 10년 넘게 중도매인을 해온 김모(55)씨는 “재난지원금은 바라지도 않는다. 러시아·중국 등과 공조를 해서 제발 오염수 방출을 막아만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도 버텼는데, 우리 앞바다가 오염되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가족 식탁에도 수산물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 광주공판장에는 한 해 평균 3800여 t, 270억원 규모 국내외 수산물이 유통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기 직전 해인 지난 2010년 광주공판장에서는 90t 가량의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됐지만 지난해에는 그의 5분의 1 수준(-79.7%)인 18.3t 가량이 들어왔다.

전체 유통량에 대한 비중은 10년 새 2.0%에서 0.5%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거래금액 역시 10년 전 5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7500만원으로 70.3%(4억1500만원) 감소했다. 거래금액 비중은 전체의 2.2%에서 0.8%로 줄었다.

수협 광주공판장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이후 급격한 내리막 길을 걸었다. 2010년 90t 가량 거래되던 일본산 수산물은 이듬해 46.9t(-47.9%)으로 반토막 났다. 2012년 24.3t, 2013년 27.3t 등 거래량을 나타내다 2014년에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아예 거래량 ‘0’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4.4t(2015년)→

20.7t(2016년)→26.7t(2017년)→29.3t(2018년)→15.5t(2019년)→18.3t(지난해) 등 전체 거래량의 1%가 되지 않는 비중을 이어갔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광주공판장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8.3t 가량으로, 전체(1016.7t)의 0.8%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전체 95억원의 0.7% 정도인 6700만원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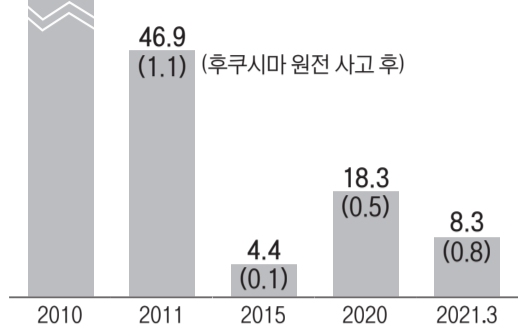
올해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의 절반 가량(53.9%)은 명태로, 3개월 동안 4.5t이 이곳에 반입됐다. 가리비(2.1t), 방어(0.1t)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일본산 수산물은 식당 등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주문 형식을 받아 거래한 물량이다.

이달 들어서는 일주일에 10kg짜리 한두 상자 거래되던 가리비나 명태 등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 수협 광주공판장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

(단위:t,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수협 광주공판장



올 들어 3월 말까지 광주공판장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8.3t 가량으로, 전체(1016.7t)의 0.8%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전체 95억원의 0.7% 정도인 6700만원 정도다.

올해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의 절반 가량(53.9%)은 명태로, 3개월 동안 4.5t이 이곳에 반입됐다. 가리비(2.1t), 방어(0.1t)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일본산 수산물은 식당 등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주문 형식을 받아 거래한 물량이다.

이달 들어서는 일주일에 10kg짜리 한두 상자 거래되던 가리비나 명태 등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15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수협 광주공판장에서 한 중도매인이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거래가 끊긴 상태다. 이철용 광주공판장 경매실장은 “수협 광주공판장에 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부산은 물론 광주 지역 시장 거래량과 비교해도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식업이 위축

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어업인들이 또다시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수협 광주공판장에서는 전년보다 82.4t(-2.3%) 감소한 3558.2t이 거래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지난 14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2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우수 직원 '3월 스페셜 명장' 시상식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新 광은명장제도’ 우수직원 시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4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2021년 2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신(新) 광은명장제도’ 우수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新光은명장제도’는 직원의 영입활동을 신빙성 있는 지수로 평가해 포상·격려하는 제도다. 직원들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장기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광주은행 측은 기대했다.

기존 운영하던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편·시행하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돕고 있다.

시상은 여신·수신·카드·PB(자산관리)·포용·외환·고객기여·영업지원 등 총 8개 부문에서 이뤄진

다. 상·하반기 ‘세일즈 명장’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세일즈 명장을 후보로 최우수 직원을 선정해 ‘광은 명장’을 시상한다.

‘광은 명장’, ‘세일즈 명장’과는 별도로 ‘월별 스페셜 명장’을 뽑는 행사도 마련됐다.

이날 송 행장은 2분기 경영전략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3월 스페셜 명장’ 우수 직원을 시상했다.

그는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디지털금융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경쟁해야 할 시장의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며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의 도약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新光은명장제도’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광주·전남 무역수지 코로나 이후 ‘최대 흑자’

### 지난달 46억5500만달러...전년대비 24%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4.0% 증가한 46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25.3% 증가한 31억75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4억80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이후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는 게 광주세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수출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4억3600만 달러, 수입은 47.7% 증가한 7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6억9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송장비(1.1%)와 반도체(14.3%), 가전제품

(9.8%), 타이어(45.9%)는 증가한 반면, 기계류(1.5%)는 소폭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43.9%)와 가전제품(51.6%), 기계류(114.9%), 고무(72.5%) 등이 증가했다.

전남은 전년 대비 수출이 31.5% 증가한 32억 1900만 달러, 수입은 19.9% 증가한 24억3800만 달러로 7억81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화공품(30.7%)과 철강제품(107.3%), 수송장비(37.3%)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수입에서는 철광(130.2%)과 화공품(58.0%) 등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농협자산관리 광주전남지사, 영광 농업인심터에 100만원 지원

농협자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는 영광 굴비골 농협, 농협 영광군지부와 15일 영광군 법성면 입안리 농업인심터를 방문,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업인 희망동행’ 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전남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으로 농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희망동행은 농협 60주년을 기념하고 농축협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노명하 지사장은 “지역 농축협과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하고, 농촌과 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농협의 부실자산을 관리해 농협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다. 부실 채권 관리, 임대차 조사, 농업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94.33 (+11.95)
↓ 코스닥	1013.90 (-0.52)
↑ 금리(국고채 3년)	1.147 (+0.045)
↑ 환율(USD)	1117.60 (+1.0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